

KRIVET Issue Brief

2014

발행인 박영범 | 발행일 2014년 4월 30일 | 발행처 한국직업능력개발원

50호

4년제 대졸과 전문대졸의 초기 노동시장 성과 비교

- 전문대졸의 취업률은 85.9%, 월평균 소득은 202만 원으로 4년제 지방대졸의 취업률(82.9%)과 소득수준(196만 7천 원)보다 높음.
- 성별 취업률을 살펴보면, 남자는 4년제 대졸(85.7%)보다도 전문대졸의 취업률(90.1%)이 높고, 여자는 4년제 지방대졸(80.9%)보다 전문대졸(82.3%)이 높음.
- 성별 소득수준은 남녀 모두 전문대졸의 소득수준(남자: 233만 8천 원, 여자: 171만 7천 원)이 4년제 지방대졸(남자: 220만 8천 원, 여자: 168만 8천 원)보다 높음.
- 인문, 사회, 자연계열에 진학할 경우, 4년제 지방대학보다 전문대학에 입학하여 2년 먼저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것이 취업에 더 유리함.

01 분석의 필요성 및 분석 자료

| 전문대학보다 4년제 대학 선호가 합리적인지에 대한 검토 필요

- 우리 사회에는 전문대학보다 4년제 대학을 선호하는 경향이 존재함.
 - 학부모와 학생들의 4년제 대학 선호와 전문대학의 4년제 대학 전환으로 인해 4년제 대학이 팽창하고 있음.
 - 그런데 과연 이런 경향이 경제적으로 볼 때 합리적인 것인지, 아니면 정보 부족이나 단순 편향에 근거한 선택인지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임.
- 본고에서는 4년제 대학 유형별로 졸업생의 초기 노동시장성고를 전문대학과 비교해 보고자 함.

| 분석 자료: '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' 2011년 조사 자료

- 분석 자료: 한국고용정보원의 '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' 2011년 조사 자료(2010GOMS1, 2008GOMS3)를 분석
 - 2010GOMS1: 2010학년도(2009년 8월 및 2010년 2월) 4년제 대학 졸업생 11,125명을 2011년 하반기(졸업 후 약 20개월 경과 시점)에 조사
 - 2008GOMS3: 2008학년도(2007년 8월 및 2008년 2월) 전문대학 졸업생 4,234명을 2011년 하반기에 조사
 - 분석 시 가중치를 적용하여 대표성 확보
- 분석 방법
 - 전문대학 진학과 4년제 대학 진학 중 어떤 경우가 취업에 유리한지를 엄밀하게 비교하기 위해서는 유사한 연령집단 중 대학 선택만 달라진 집단 간의 취업 성과를 비교하는 것이 적절함.



- 4년제 대학의 경우 전문대학에 비해 졸업까지 최소한 2년이 더 소요되기 때문에, 2011년 하반기를 기준으로 2010학년도 4년제 대학 졸업생과 2008학년도 전문대학 졸업생의 노동시장 성과를 비교
- 대학 유형: 4년제 대학은 상위 10개 대학¹⁾과 상위 10개 대학을 제외한 수도권 대학²⁾ 및 지방대학으로 나누고, 전문대학은 수도권 대학과 지방대학으로 구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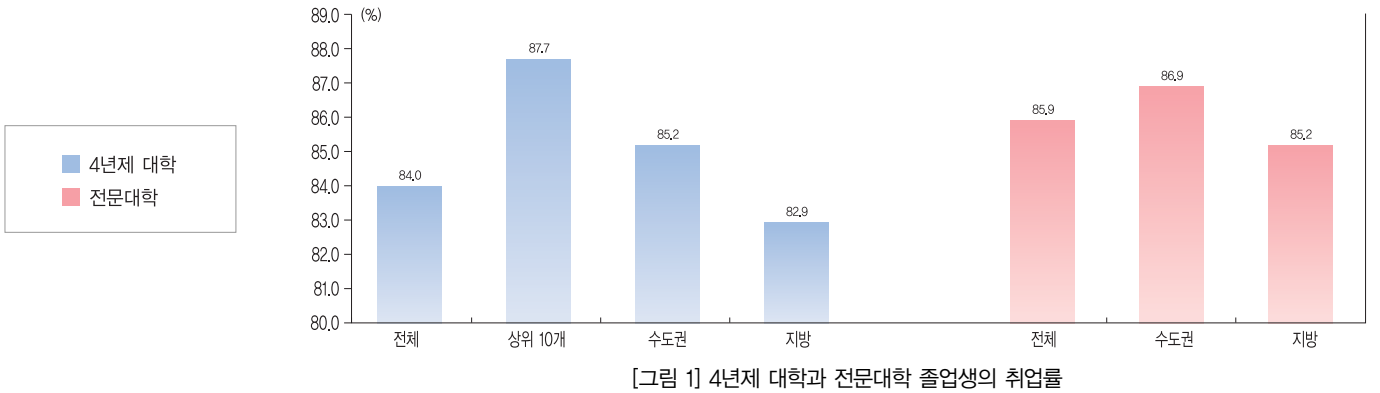
각주 |
 1) 2013년 중앙일보 대학평가 기준
 2) 수도권 대학: 서울, 경기, 인천 소재 대학

02 4년제 대졸과 전문대졸의 초기 노동시장 성과 비교

전문대졸의 취업률은 85.9%로 4년제 대졸(84.0%)보다 높음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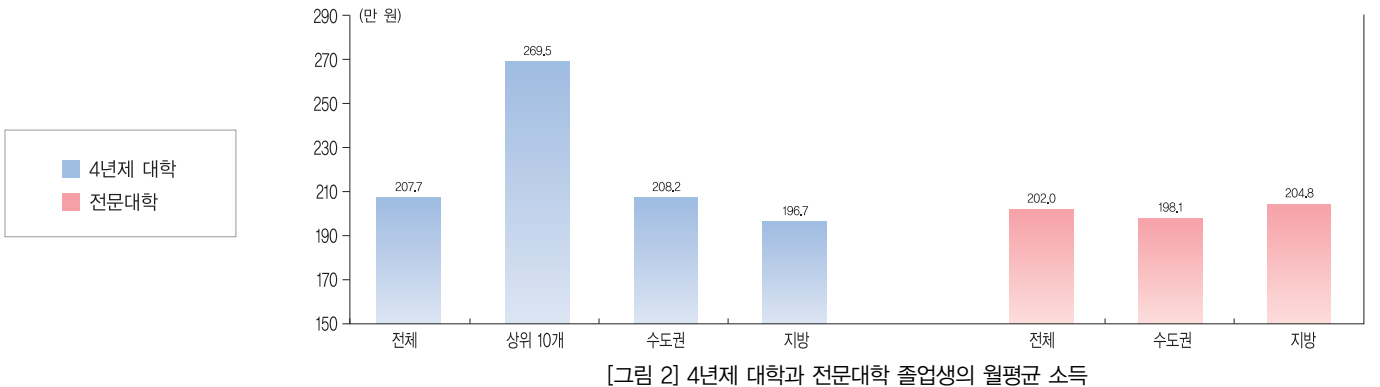
- 4년제 대졸의 취업률³⁾은 84.0%이나 전문대졸은 85.9%로 전문대학의 취업률이 근소하게 높음.
 - 고등학교를 같이 졸업하고 4년제 대학에 진학하는 경우보다 전문대학에 진학하여 2년 일찍 노동시장에 진입한 경우 초기 취업률이 높음.
- 4년제 지방대졸의 취업률은 82.9%로 전문대졸(85.9%)보다 낮음.
 - 4년제 대학의 경우, 상위 10위권 대학은 87.7%, 수도권 대학은 85.2%, 지방대학은 82.9%로 대학 서열에 따라 취업률에 차이가 나타남.
 - 전문대학의 경우, 수도권은 86.9%, 지방은 85.2%로 차이가 크지 않음.

각주 |
 3) 취업률= 취업자 수/(대졸자 수- 진학자 수)×100



4년제 대졸과 전문대졸의 소득 차이가 크지 않음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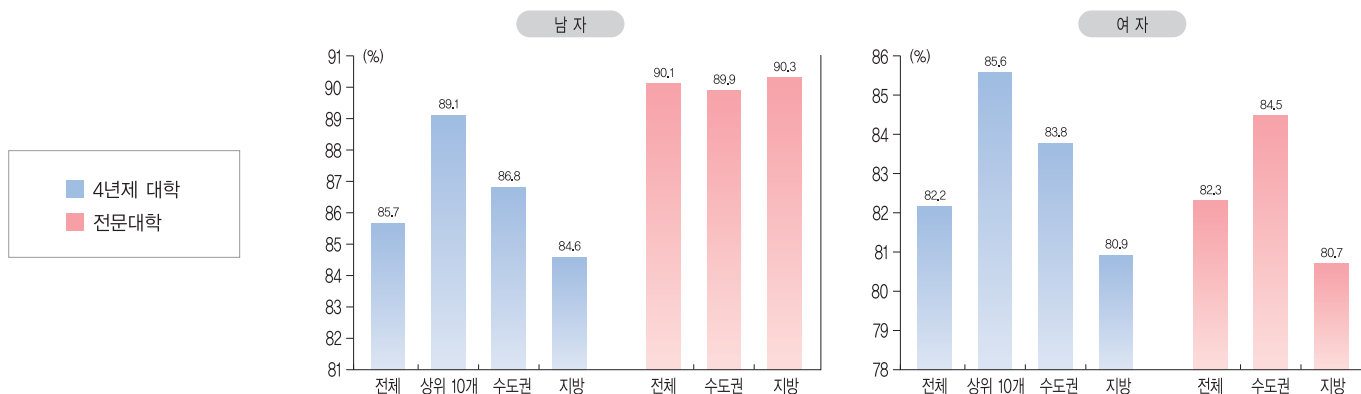
- 상위 10개 대학을 제외하면, 4년제 대졸과 전문대졸의 소득 차이는 사실상 없음.
 - 4년제 대졸자의 월평균 소득은 207만 7천 원으로 전문대졸의 202만 원보다 5만 7천 원 높음.
- 그러나 4년제 지방대졸의 월평균 소득은 196만 7천 원으로 전문대졸(202만 원)보다 낮음.
 - 4년제 대학생이 전문대 학생보다 2년간 추가 교육을 받는데 따르는 기회비용(2년간의 교육비와 취업 시 받을 소득의 상실분)을 고려한다면, 적어도 초기 노동시장 성과의 관점에서 볼 때 지방 4년제 대학에 진학하는 것보다는 전문대학에 진학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임.



03 성별 · 전공별 초기 노동시장 성과 비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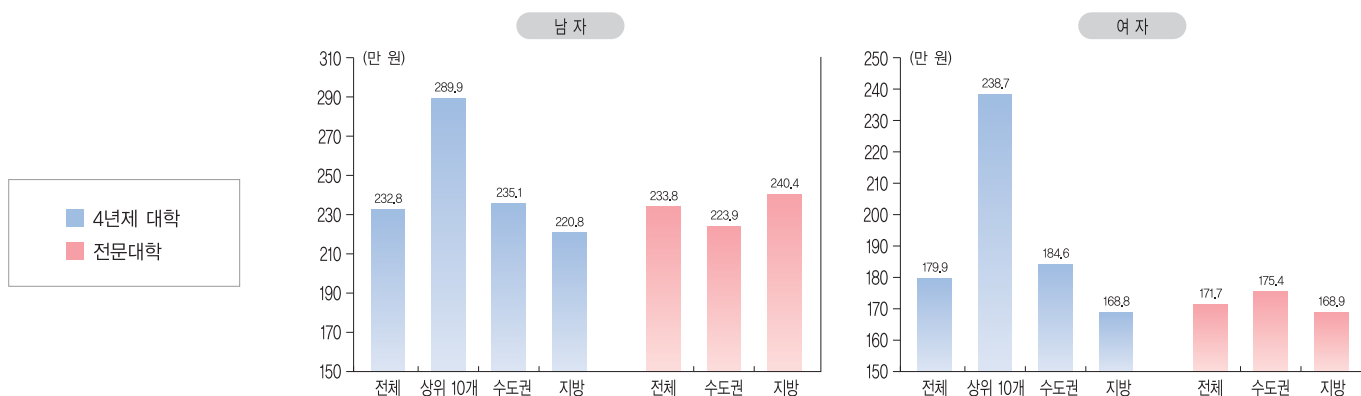
남자는 전문대학의 취업률이 높고, 여자는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의 취업률이 유사함.

- 남자의 경우 4년제 대졸의 취업률은 85.7%이나 전문대졸은 90.1%로 높음.
 - 전문대졸의 취업률(90.1%)이 상위 10개 대학(89.1%)과 유사하나, 4년제 수도권 대학(86.8%)과 지방대학(84.6%)보다는 높음.
- 여자의 경우 4년제 지방대졸(80.9%)보다 전문대졸(82.3%)의 취업률이 높음.



[그림 3]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 졸업생의 성별 취업률

- 월평균 소득은 남자의 경우, 4년제 대졸이 232만 8천 원, 전문대졸이 233만 8천 원으로 거의 비슷한 수준임.
 - 여자는 4년제 대졸이 179만 9천 원, 전문대졸이 171만 7천 원으로 4년제 대졸이 8만 2천 원 더 많음.
- 그러나 남녀 모두에게서 전문대졸의 소득수준이 4년제 지방대졸보다 높음.
 - 남자의 경우, 전문대졸의 월평균 소득(233만 8천 원)은 상위 10개 대학(289만 9천 원)이나 4년제 수도권 대학(235만 1천 원)보다는 적지만, 4년제 지방대학(220만 8천 원)보다는 오히려 13만 원이 많음.
 - 여자의 경우에도 전문대졸(171만 7천 원)은 상위 10개 대학(238만 7천 원)이나 수도권 소재 4년제 대학(184만 6천 원)보다는 낮지만, 4년제 지방대학(168만 8천 원)보다는 다소 높음.



[그림 4]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 졸업생의 성별 월평균 소득

인문, 사회, 자연계열에 진학할 경우, 4년제 지방대학보다 전문대학에 진학하는 것이 취업에 유리함.

- 전공별로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의 취업률을 비교하면, 교육계열과 사회계열은 전문대학의 취업률이 높고, 의약계열과 예체능계열은 4년제 대학이 더 높음.
 - 교육계열은 4년제 대졸은 76.3%, 전문대졸은 84.8%이고, 사회계열은 4년제 대졸은 81.7%, 전문대졸은 86.0%로 전문대졸의 취업률이 높음.

- 의약계열은 4년제 대졸이 92.9%, 전문대졸은 88.8%이고, 예체능계열은 4년제 대졸이 86.1%, 전문대졸은 81.3%임.
- 전공별 4년제 지방대학과 전문대학의 취업률을 살펴보면, 교육계열, 사회계열, 인문계열에서 전문대학의 취업률이 높음.
 - 교육계열은 4년제 지방대졸이 75.4%, 전문대졸이 84.8%, 사회계열은 4년제 지방대졸이 80.1%, 전문대졸이 86.0%, 인문계열은 4년제 지방대졸이 80.4%, 전문대학이 83.2%로 전문대학이 높음.

〈표 1〉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 졸업생의 전공별 취업률

(단위: %)

| | | 인문 | 사회 | 교육 | 공학 | 자연 | 의약 | 예체능 |
|--------|--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
| 4년제 대학 | 전체 | 83.0 | 81.7 | 76.3 | 87.7 | 83.4 | 92.9 | 86.1 |
| | 상위 10개 | 92.4 | 86.0 | 70.4 | 90.5 | 84.4 | 91.4 | 89.4 |
| | 수도권 | 84.6 | 83.7 | 80.9 | 89.8 | 81.0 | 93.9 | 85.4 |
| | 지방 | 80.4 | 80.1 | 75.4 | 86.2 | 84.1 | 93.0 | 86.0 |
| 전문대학 | 전체 | 83.2 | 86.0 | 84.8 | 88.6 | 85.1 | 88.8 | 81.3 |
| | 수도권 | 86.0 | 84.7 | 95.4 | 89.5 | 80.4 | 94.3 | 83.1 |
| | 지방 | 79.7 | 86.7 | 78.7 | 87.7 | 87.6 | 86.4 | 79.5 |

- 전공별로 취업자의 소득수준을 비교해보면, 인문계열, 사회계열, 자연계열, 예체능계열에서 전문대졸자의 월평균 소득이 4년제 지방대졸자보다 많음.
 - 인문계열의 경우 전문대졸자가 4년제 지방대졸자보다 24만 1천 원, 자연계열은 16만 5천 원, 예체능은 14만 3천 원, 사회계열은 9만 1천 원 더 많이 받음.
 - 교육계열은 4년제 지방대졸이 전문대졸보다 35만 2천 원이 많고, 의약계열은 39만 5천 원이 많음.

〈표 2〉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 졸업생의 전공별 월평균 임금

(단위: 만 원)

| | | 인문 | 사회 | 교육 | 공학 | 자연 | 의약 | 예체능 |
|--------|-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
| 4년제 대학 | 전체 | 190.9 | 211.0 | 189.0 | 238.4 | 189.6 | 249.5 | 165.6 |
| | 상위 10개 | 249.6 | 281.0 | 247.5 | 297.0 | 253.2 | 273.0 | 197.6 |
| | 수도권 | 198.2 | 213.6 | 183.6 | 243.1 | 194.8 | 251.9 | 164.9 |
| | 지방 | 174.9 | 196.3 | 186.6 | 224.4 | 177.9 | 244.8 | 161.5 |
| 전문대학 | 전체 | 199.0 | 205.4 | 151.4 | 224.9 | 194.4 | 205.3 | 175.8 |
| | 수도권 | 195.7 | 196.7 | 155.5 | 212.3 | 196.5 | 216.6 | 180.3 |
| | 지방 | 203.5 | 209.8 | 148.5 | 236.8 | 193.4 | 200.0 | 171.2 |

04 시사점

- 초기 노동시장 진입 시 서열이 낮은 4년제 대학보다 전문대학의 취업률과 소득 수준이 더 높음.
 - 4년제 대학에 진학함으로써 발생하는 기회비용(2년간의 등록금과 취업 시 받을 소득의 상실분)까지 고려한다면, 4년제 대학 진학보다는 전문대학에 진학하는 것이 적어도 초기 노동시장에서는 합리적인 수 있음.
- 4년제 대졸자의 취업률과 임금 수준이 낮은 것은 수요에 비해 4년제 대졸자가 과잉 공급되고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음.
 - 전문대학의 4년제 대학 전환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나, 교육의 질이 담보되지 않는 경우에는 졸업생 취업을 고려하여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음.
- 본 분석결과는 졸업 후 초기 노동시장 성과를 비교한 것으로, 이 결과가 생애에 걸쳐 지속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은 아님.
 - 평생소득의 관점에서 전문대학 졸업생과 4년제 대학 졸업생을 비교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함.

채 창 균 (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)